

2. 新大企業 政策과 新財務 戰略

- (課題) 新大企業 政策은 企業의 透明性 確保로 亂 기업 경영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임
- (內容) 기업의 재무 관련 주요 정책 내용은 與信 管理 制度의 지속으로 事業 多角化에 대한 規制와 相互 支給 保證 限度의 縮小임
- (對應 戰略) 新大企業 政策의 전개에 따라 대기업의 재무 전략은 相互 支給 保證이 이루어지지 않는 獨立 採算制의 기업을 전제로한 財務 戰略이 바람직함

정부는 신대기업
정책의 실시로
열린 기업 경영
을 지향고자 함

- 新大企業 政策은 기업의 透明性 확보를 지향함
 -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서 경영 투명성 확보로 선회하고 있음
 - 신대기업 정책은 정부의 사전적인 간섭은 줄이되 기업의 경영 행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임
 - 이를 위하여 소액 주주 대표 소송 제도의 강화, 공시 제도의 강화 감사 및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 등의 견제 장치가 논의되고 있음

주요 재무 관련
정책으로는 여신
관리 제도의 지속
과 상호 지급 보
증 한도의 축소임

- 與信 管理 制度를 활용해서 事業 多角化에 대한 規制 持續
 - 현재 5대 및 30대 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신 한도(Basket) 관리를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
 - 10대 계열내에서도 1~5대 계열과 6~10대 계열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하므로 현행과 같이 구분 관리함
 - 10대 계열중 상위 5대 계열의 대출금, 총자산 등의 비중은 74%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음
- 相互 支給 保證 限度의 縮小
 - 상호 지급 보증 한도의 축소
 - 상호 지급 보증 한도를 5년내에 자기자본의 0% 까

지 축소

- 수출 보증이나 지급 보증도 채무 한도에 포함시키면 경영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임
-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은 금융 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외형적 규모 및 상호 지급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음

**신대기업 정책에
따라 독립 체산제
를 전제로한 기업
경영의 대응 전략
이 필요함**

- 相互 支給 保證을 최소화하려는 財務 戰略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함
 - 제1금융권 이용의 비중 축소
 - 유·무상 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 이용 비중을 확대
 - 할부 금융과 같은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의 채무 부담 축소
 - 제2금융권을 통한 차입,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회사채 및 유·무상 증자의 확대
 - 해외 금융 활용폭 확대
 - 해외 DR 발행, 역외 금융 시장 이용을 통한 국내 여신 부담 축소
 -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극적 활용
 - 해외 금융 시장 접근을 위하여 해외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 획득이 시급
 - 각 계열사간 전략적 제휴, 기술 제휴 등 재무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

(백 홍 기)